

당신의 한표, '개'에게 줄 건가 '늑대'에게 줄 건가



카이사르의 암살. 황제가 되려던 그가 암살당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제국이 시작되었다.



1830년 7월혁명으로 복고왕정은 무너졌지만 루이 필리프는 '프랑스 시민의 왕'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

함규진 지음



바야흐로 선거 시즌이다. 곳곳에서 후보자들을 보게 된다. 입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한 표를 호소한다.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에 평가 받는 과정에 다르다. 그 평가의 과정에서 극명하게 후보자와 대중의 욕구가 분출되는 지점이 선거다. '인간'의 실체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영역에서 이진투구가 난무한다.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양심이나 심지어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것처럼 보인다.

선거는 분명 '가장 나은 사람을 뽑는 일'이다. 그렇다면 선택된 그 나은 사람들이 지역과 사회,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선택된 이들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시야를 넓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 왜 프랑스는 왕을 단두대에서 처

카이사르에서 히틀러·케네디까지, 그들이 선택받은 11가지 힘

선거 특성 바탕으로 인류 역사를 바꾼 선택 순간들 다뤄

1987년 김영삼-김대중 민주화 거목 대선 실패도 분석

형한 이후 또 다시 황제를 불러들였을까? 왜 가장 진보적이라는 바이마르 공화국은 3년 만에 제3제국으로 변했을까? 그뿐 아니다. 우리나라는 왜 1987년 민주화의 기회를 맞았는데 군사정권을 선택했는가?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 서울고대 윤리교육과 함규진 교수가 펴낸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은 선거는 과연 민주주의에 어울리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카이사르부터 히틀러, 케네디까지 그들이 선택받은 11가지 힘을 들여다본다.

프랑스 격언인 '개와 늑대의 시간'은 빛과 어둠이 혼재돼 개와 늑대인지 분간하기 힘든 황혼의 순간을 뜻한다. 제목처럼 고대 로마 시대의 집정관 선거에서부터 한국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공통점은 '개와 늑대들의 시간'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계사적인 주요 사건들을 11가지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11가지 선거가 함의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들려준다.

먼저, 고대 로마의 공화정 사례를 들여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자격은 오직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쿠데타가 이어지는 혼란기에 등장한 카이사르는 탁월한 수완으로 민중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그는 황제 등극 직전 측근인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한다. 문제는 시민이 끌어내리는 형태가 아닌 소수에 의한 전복은 역사적으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는 계기로 작용한다.

13세기 몽골인들의 대회의인 '쿠릴타이'는 누구에게나 열린 회의였다. 그러나 칭기즈칸 사후에는 권력자를 가리는 힘겨루기로 변했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날치기'가 빈번히 일어났다. 결국 형식적 쿠릴타이를 통해 등극한 쿠빌라이가 대관으로 즉위 후, 초원의 민주주의는 제국에 잡아먹히게 된다.

책에는 프랑스 '나폴레옹 3세' 루이 나폴레옹 사례도 등장한다. 루이 나폴레옹은 프랑스인들의 나폴레옹 향수를 자극하고 부르주아부터 룩센에 이르기까지 구미에 맞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후 그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재자로 '간택'됐다.

"신화가 되어버린 인물을 이어받는 사람은, 그 유산이 축복일 뿐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실수가 그 신화에 대한 봉인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저자는 우리나라 1987년 김영삼과 김대중, 민주화의 두 거목의 대선 실패도 분석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명분이 있었지만 분열의 결과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이어졌고 이후 삼당 합당이라는 막장으로 치달았다. 선거에는 승리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경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라기보다 과두정체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평등하게 나라일에 참여해 '보다 나은 사람'을 합치하는 선택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노예들이 뛰어난 지배자를 고르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 곧 다가온다. '개'를 뽑을지 '늑대'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

〈추수밭·1만7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박정양 지음, 한철호 옮김 '미숙습유'

130년 전 초대 주미공사에 눈에 비친 미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881(1841~1905)년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했던 박정양은 요직을 두루 거친, 실무형 개혁파 관료였다. 1887년 9월 조선 최초의 주미전권공사로 떠날 때 고종은 그에게 "미국 정부와 인민의 정형을 파악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초대 주미전권공사였던 박정양의 미국 견문기 '미숙습유'(美俗拾遺)는 미국 제도의 문물을 모두 44개 항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다. 박정양은 조선 말기의 불면부당한 온건 중립파로서 진보적 개화사상을 견지했으며 이상재 등 개화파 인사들을 지원했다.

이번에 동국대 역사학과 한철호 교수의 번역으로 출간된 '미숙습유'는 단순한 견문록이 아니라 지리·역사에서 통치구조, 교육, 복지시설 등 사회 인프라까지 다루고 있다. 당시 고종에게 보고한 내용은 비록 출간되지 않았지만 정부 요리의 관리들에게 알려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공서' 탐구서였다.

"신문지는 한 나라의 중요한 일인데, 민간회에서 설립할 것이다. 신문은 정부로부터 그 자유권을 허락받아서 비록 전·현직 대통령의 좋은 말이나 나쁜 행동일지라도 구애받지 않고 쓴다. 일이 있으면 바로 쓰고 들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적어내어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포용해주는 사사로움이 없다." 위는 보고서에 실린 일부문으로, 박정양이 미국 현황을 꼼꼼하게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박정양이 귀국을 준비하던 1888년 11월 전후에 탈고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 서양 견문기로 알려진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푸른역사·1만75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장강명 지음 '당선, 합격, 계급'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려면 (人) 시험(試)을 쳐야 한다. 시험 한쪽은 지방생들의 세계, 다른 쪽은 합격자들의 세계다."

문학공모전이라는 제도와 공개채용이라는 제도를 밀착 취재, 사회가 사람을 발탁하는 입사-공채 시스템의 기원과 한계를 분석하고 부조리를 고발하는 논픽션이 나왔다. 기자 출신 전업 작가 장강명이 쓴 '당선, 합격, 계급'은 당선과 합격이라는 제도가 사회적 신분으로 굳어지며 '계급화'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낸다.

사실 문학상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당선작 없음'이 발표되기도 하고 통합된 문학상도 적지 않다. 문학공모전이 어떻게 이렇게 위축됐을까. 아마도 문학공모전은 기업 공채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되며 통과하기만 하면 안정된 내일자 지위를 갖게 된다.

저자는 삼성그룹 입사 시험 현장, 로스쿨 반대 시위 현장, 문학상 심사 현장 취재를 통해 공채 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부작용을 살펴본다. 또한 문학상을 운영하는 출판사 대표, 문학상을 준비하는 지방생들, 작가와 출판 편집자,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인터뷰하며 일그린 채용 시장의 난맥상을 풀어낸다.

저자는 1996년에 문학공모전이 본격화했고 2015년에 축소되는 전조들이 나타났다고 진단한다. 20년의 간극과 문학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한국 문학 20년 체제가 종언을 고하는 시그널이다. 한국 경제가 모방과 추격의 시대 이후 고전하는 이유는 과거시험, 신춘문예, 공채를 관통하는 경직된 방식에 의존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민음사·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리 아이젠·웁드롱 콘크 지음, 김아림 옮김 '우리는 죽음과 함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삶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이 있게 마련이고,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죽음을 그저 불길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길 뿐, 제대로 알지 못한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유전자를 다루는 생물학자들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가'는 종교와 과학의 논리를 엮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밝히고자 한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 이곳에서 달라이 라마의 주선으로 에모리-티베트 과학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미국 에모리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저자 아리 아이젠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와 미국을 오가며 티베트 승려들에게 과학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는다. 승려들이 말하는 불교 개념이 최신 생물학 지식과 상통한다는 점. 현대 서구 과학이 마주한 난제에 불교적 관점이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 한명의 저자 에모리-티베트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승려 웁드롱 콘크이 전하는 티베트인들의 이야기 또한 눈길을 끈다.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 히말라야 고원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중국의 탄압과 가혹한 재난에 의연히 대처하는 자세 등 이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된다.

〈영림카디널·1만60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마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